# 전주 '스포츠-관광여행' 상품 만든다

## 시-코레일-관광공사-전북현대 등 유네스코 자원-축구경기 연계 협약 체결

전주시가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전북현대모터스, 전북관광협회와 함께 유네스코 자원과 전북현대 축구경기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14일 전주시장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양운학 코레일 전북본부장, 한국관광공사 최성우 지사장, 전북 현대 모터스 FC 이철근 단장, 최수연 전라북도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스포츠 전주관광' 철도여행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주시가 지난 1월,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대한민국 보물찾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이 선정되면서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 등과 함께 유네스코 자원과 정신, 철학이 담긴 품격높은 여행상품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K리그 4번째 정규리그 우승과 평균누적관중 1위를 차지한 전북현대 모터스의 축구경기 관람과 전주 여행상품을 결합하고, 오는 2017년 전주에서 개최되는 FIFA U-20 월드컵 개막전을 비롯한 주요경기를 여행상품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관광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전주시는 이에 따라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과 전북현대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관광상품 활성화를 위해 코레일과 함께 철도여행상품을 만들기로 하고 철도여행상품에 대한 상품개발 및 홍보, 안내 등 품격있는 여행상품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코레일 전북본부는 철도관광상품의 운영과 관광객 유치를 적극 지원, 전주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는데 앞장서기로 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사업으로 선정된 '대한민국 보물찾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 상품 및 스포츠관광 활성화, 클로컬 관광자원화사업 등을 통해 한국대표상품으로 집중 육성 지원을 약속했다.

전라북도관광협회도 도내 여행사 등과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와 스포츠가 결합된 전주여행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유네스코 자원이 풍부한 전주가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FIFA U-20 월드컵 개막전이 전주에서 개최되는 등 국제적 문화관광도시, 스포츠관광도시로 갈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상품을 기반으로 철도와 K리그, 2017 FIFA U-20 월드컵을 연계한 국내외 여행상품개발과 운영으로 세계인이 찾는 명품관광도시 전주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전주시는 14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승수 시장과 박현규 시의장, 양운학 코레일 전북본부장, 한국관광공사 최성우 지사장, 전북현대 이철근 단장, 최수연 전북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네스코 & 스포츠 전주관광 철도여행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멸종위기 동물 수달 우표 발행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이 우표로 발행된다.

전북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멸종위기 동물'인 수달을 소재로 기념우표 80만장과 소형시트 7만세트(2장 1세트)를 15일부터 발행한다고 밝혔다.

우표 디자인은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귀엽고 익살스러운 수달가족의 모습을 담았으며, 특수금박가공과 광택처리로 소장가치를 높였다.

우정청 관계자는 "이번 우표 소재인 수달은 그 동안 무분별하게 포획된 데다 하천 개발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1982년에 천연기념물 330호로 지정된 동물"이라며 "이 후 2012년 부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어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민형기자

# 전주시, 로컬시네마 제작지원 추진

## 10개 작품 선정 촬영장비 · 음향 편집 등

전주시가 지역 영화인들과 전주독립영화 활성화를 위해 영화제작을 지원한다.

14일 전주시에 3월과 9월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인과 독립영화 지원을 위한 '로컬시네마 제작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사업은 디지털 영화·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가 지닌 영화제작 인프라인 전주영화제작소와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를 활용해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색보정 및 음향편집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주지역 출신을 포함한 전국의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 중 현재 영화를 촬영·제작중이거나 색보정 및 음향편집 작업 진행 예정인 디지털 영화·영상물(독립 중단편영화, 저예산예술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이다.

로컬시네마 제작 지원은 신청은 접수기간은 상반기는 3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하반기 9월 19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시는 올해 접수된 영화·영상물 중 총 10편을 선정(촬영장비지원 3편, 색보정·음향편집 5편, 디지털마스터링 2편)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jica.kr) 또는 전주영화제작소 홈페이지(theque.jiff.or.kr)에서 내려 받은 응모요강 신청서를 작성해 계획서와 예산서, 시나리오 사업자등록증 등과 함께 E-mail(redroo@jica.kr)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로컬시네마 제작지원 사업은 영화·영상물의 색보정 및 음향편집 제작 시설장비 운영을 통해 지역의 영화제작 환경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전주지역 영상문화 다양성 및 새로운 영화제작환경의 구축으로 전주영화영상산업의 브랜드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로컬시네마 제작지원 사업 담당(063-281-4190)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해야"

## 고미희 전주시의원 촉구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사진)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미희 시의원(비례대표)은 14일 제3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전주시가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오는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저렴한 연료비와 우수한 연비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차가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질소화합물 배출 가스로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디젤차의 대항마로 친환경 전기차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어도 자동차가 많이 지나가는 주요도로변에는 산책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며 "대기환경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생태도시를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탄소가스는 31.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도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제성에 주목해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제주도는 올해 환경부 보급예정차량 8000대 중 4000대를 신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대구시도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심을 쏟고 있다.

/김영재기자

##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통장 양도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4일 본인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혐의(전주금융거래법위반)로 기소된 장모(27)씨와 강모(26)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장씨 등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씨는 지난 2014년 9월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고 각각 3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도 2014년 11월과 지난해 1월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고 각각 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용주 기자

## 컴퓨터 부품 훔친 20대 '덜미'

익산경찰서는 14일 전국 모텔을 돌며 컴퓨터 부품(CPU)을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16일 0시30분께 익산시 인화동 한 모텔에 투숙, 모텔 방에 내설치된 컴퓨터 본체를 해체해 CPU와 램, 그래픽카드(시가 3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 훔친 식자재 식당에 판 30대

식당에서 훔친 식자재를 다른 식당에 팔아 넘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4일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식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3일 오후 3시께 전주시 금암동 한 정육점에서 소갈비 5kg(시가 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남원시 공고 제2016-360호

보상계획공고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량 | 보상 계획면적 | 사업 시행자 |
|---|---|---|---|---|
| 산성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 남원시 내척동 | L=1,14km B=7.0m | 73필지 18,074㎡ | 남원시장 |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 별지참조(소유자 개별 통보)
3. 보상시기 및 보상방법 : 감정평가 후 2016. 4월 이후보상협의 예정(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 현금 일시불 지급(계좌입금)
4. 보상절차 : 가. 보상대상 및 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며, 남원시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나.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 보상금 확정 통지 → 협의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6. 열람기간 : 2016. 3. 18 ~ 4. 2(15일간)
7. 이의신청 : 보상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반드시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8. 기타사항(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보상액의 산정」에 따라 시, 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인 이상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다. 보상장소, 보상금액, 주민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9조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마.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 사 업 명 | 위 치 | 사업량 | 보상 계획면적 | 사업 시행자 |
|---|---|---|---|---|
| 산성선 농어촌도로 | [illegible] | L=1,14km | 73필지 | [illegible] |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해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하, 소유자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16년 3월 15일 남 원 시 장